요한의 간구와 가이오의 추구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과 또 영혼이 잘된 자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의 간구와 가이오의 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야기의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요한 3서는 사도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 가이오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 사도바울의 전도여행 때에 동행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구절이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아마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 안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위 원조(?) 삼박자 축복, 순복음교회에서 주창하는 삼박자 축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리듬이 잘 맞아요.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첫 박자, <네가 범사에 잘되고> 두 번째 박자, <강건하기를> 세 번째 박자, 그러니까 딱 딱 떨어져서 아주 흡입력이 있다고 할까요, 설득력이 있다고 할까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에 큰 지진이 났어요. 참, 아침마다 시시각각 들리는 뉴스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처음에는 백여 명 정도 죽었으려니 생각해서 그 지진의 강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구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나미에 의해서 7만 명 인구의 도시 전체가 다 없어질 판이고 만 명이 실종된 상태고 사망자가 얼마가 될지 예측도 못할 상태에 거기다가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핵물질이 유출될 염려에 벌벌 떨고 있고 화산까지 폭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원전사고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혹함도 정도가 있어요. 더 이상 참혹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참혹함은 무엇이냐? 그러한 사고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잘 된 영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자들 같으면 참혹한 현장 속에 죽은 것이 너무나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참혹한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죽을 거예요. 앞을 다투어 죽게 됩니다. 진짜 참혹한 현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그 삶의 현장이 지옥으로 할당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참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됨의 증거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요한이 판단할 때 영혼이 잘 됐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영혼이 잘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의 근거가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영혼이 잘됨의 증거가 뭐냐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방인 출신 중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니는 이방인 선교사가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재정적으로 이들을 후원해 주는 스폰서가 없어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자기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이방인 출신의 선교사들을 잘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적인 인사였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그들을 거부하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이 디오드레베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선교사들을 잘 도왔습니다. 이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한3서 전체의 내용은 이러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얘기는 편지에 쓰는 의례적인 인사말인데 조금 형태를 달리 한 것이에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형태는 바뀌지만 베드로조차도 이런 커다란 유형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요한3서에서 사도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편지에서의 인사는 좀 독특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이 일본 같은 지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익과 손해를 주판알을 튕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와 전자 분야는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일본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참 말하기도 민망해요.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여행사나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자회사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회사들은 영혼이 잘된 자들이라서 일본의 참혹한 지진의 참사로 인해서 더 잘되는 것이고 여행사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이라서 일본의 참

사와 더불어 불행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은 참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일본에 일어난 지진 참사가 일본사람의 어떠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더니 잘 됐다, 우상숭배가 만연하더니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살고 봐야 돼요. 살아야 선교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지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한폭탄이 있어요. 여차 하면 터질 시한폭탄인 이북이 있어요. 지진, 저리가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영혼의 잘못됨을 눈여겨보시다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시게 될 경우에 북한이 마음먹고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이건 몇 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무기로는 나라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환란 당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남의 나라 참변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로 삼는다든지 기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영혼이 잘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영혼이 잘 됐을까요?
영혼이 잘됨의 증거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대한민국 교회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인 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잘됨의 증거, 영혼의 잘못됨의 증거를 불완전할지는 모르지만 다소나마 어디서 증거를 찾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마음상태에서 영혼의 잘됨과 잘못됨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구절을 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성경구절은 거울과 같아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가 잘되고,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범사가 잘된다고 보고, 이 육체가 건강한 것이라야 된다고 보는 이 관점이 우선 성경해석 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이오의 상태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요한이 가이오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자로서 가이오가 추구해

야 될 것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인 사도요한이 영혼이 잘된 가이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구하는 내용과 가이오가 자기 삶에서 영혼이 잘된 자답게 목적삼고 추구하는 내용이 꼭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간구와 가이오가 추구하는 내용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간구함과 추구가…
왜 그것이 일치해야 됩니까?

이와 비슷한 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사랑에 대해 얘기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복지를 주실 때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찬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너희가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추구해야 합니까?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사랑을 추구하면 이 나머지는 추구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추구하는 내용과 주어지는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가면 성읍에서 밭에 나가면 밭에서 복을 받고, 너희가 떡 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떡 반죽 그릇의 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성읍에 나갔을 때에 주어질 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때 그 간구의 내용은 가이오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평생 가이오는 범사에 형통이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입에조차 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이방인 선교사들, 보면 같잖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 스폰서라고는 없는 자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이 좋아서 전하러 다니는 그 이방인들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차갑게 잘라내는 것을 가이오가 다 그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건강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몸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된 이후에는…
그러나 그것을 사도요한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가이오가 하는 일은 그저 다 형통하면 좋겠다,

가이오가 그저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안수 받은 이후부터 지금 제로원(0,1) Gospel TV라고 하는 선교방송을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간구가 뭐냐 하면
'우리 막내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듣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그냥 지금 현재 감사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불행해 진다고 늘 말씀을 드려도 '그래, 안다, 안다, 감사하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많은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 입에서 전달되는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간구가 내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수적인 부흥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제3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저런 간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될 일이 그 제3자가 나를 위해 간구하는 그 내용이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가는 곳마다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우리는 마음에 우리의 건강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네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어도 그래도 주의 이름을 추구하고 주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추구할 수 있으면 더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담당해 주신다면…
누가 예수님께 강요하고 신청했습니까?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3서 1장 2절의 구절은 요한의 간구를 왜 가이오의 추구로 일치시키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사도요한이 말한 범사의 형통이라는 말이 영혼이 잘된 자의 입장에서의 범사의 형통이 영혼이 잘되지 않은 사람들도 말하는 그런 범사의 형통을 말하는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면 사업이 잘되어야 되고 입학시험을 보면 합격해야 되고 결혼하면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회사에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승진해야만 되고, 정치에 입문했으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의 이 '강건하기를'이 누가 육체의 강건이라고 말했습니까?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기아이네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고 헬라어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사도바울은 디도서나 디모데전후서 같은 데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얘기할 때 이 '휘기아이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훈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다시 말해 교훈이 건전한 교훈인가 아닌가를 말할 때도 이 건강하다는 단어 '휘기아이네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내를 이야기 할 때 '너희의 인내가 온전하기를 바란다'고 할 때의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인내의 건강함도 '휘기아이네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강건하다는 것이 꼭 몸의 강건함을 말할까요?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사도바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일평생동안 몸에 가시를 갖고 살았던 사도바울은 영혼이 잘 못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범죄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눈 하나가 빠져서 애꾸가 되어도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천당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네 눈도 빼버리고 네 팔과 다리도 찍어 버리라,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다리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다리까지 찍어버리고 손까지 찍어버리라 이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요한의 간구가 영혼이 잘된 자로서의 가이오의 추구와 일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요한의 간구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범사에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건강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력을 총동원했을 때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가 적어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그 누가 이 세상 식의 범사의 형통을 추구한 자가 있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그런 식의 범사의 형통을 추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력을 갖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교인들이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이방세계로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먹을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살 길이 없고 집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3자로서 사도요한이 가이오에게 세상적인 기준의 범사의 형통을 간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간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자로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삼박자 축복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범사가 우리의 뜻대로 형통할 것이고 우리 몸이 무병하여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교인이 추구해야 될 주된 덕목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영혼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한 번 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비유와 은유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죄인이라고 규정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너희 선생은 맨 날 모여서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라야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입니다.

그래서 병과 죄를 비유적으로 일치시키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내용을 우리도 비유로 이해를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죄라는 병이 나은 것이지 육체의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네가 자고하게 될 수 있으니까…'
사도바울이 자고하게 된다면 자고하게 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말입니다.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잘된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사도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휘기아이네인',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혼이 잘되는 자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면,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몸에 가시를 박을 수도 있을 일이라 이겁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가시를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적인 병은 반드시 죄의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죄의 힘이 잠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용솟음쳐 올라오기 때문에…
다윗 같은 성군이 밧세바와 그런 간통의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도 살인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라도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러면, 영혼이 잘된 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어떤 상태가 영혼이 잘된 자냐, 그 영혼이 잘된 자가 어떠어떠한 모습이라면 그가 범사에 형통할 것 -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 형통을 바라며 살 수나 있겠는가? 영혼이 잘됐으면 범사에 형통할 것을 나 스스로가 추구해 간다는 건 아예 맞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을, 충돌하는 것이고, 모순되는 것이고,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겁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건강이 과연 십자가복음에서 연유되고 있는 일차적인 복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범사에 형통을 추구하고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 빼놓고는 속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몸을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방식의 전부예요. 그러면 어느 틈새에 우리의 마음이 범사의 형통을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우리의 건강을 마음에 담으면서 부요의식을 마음에 채워갖고 내가 부자 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주지시키면서 살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사이에서 어디에 틈바구니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에요. 이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에 형통이라고 하는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3자인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오의 범사에 형통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의 내용을 영혼이 잘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사에 형통이라는 문제, 그 주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요한사도가 가이오를 위해 기도한 것이 육체의 건강이라고 치더라도 그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휘기아이네인'이라는 이 단어를 영혼이 잘된 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혼이 잘된 자가 되고 영혼이 잘된 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가이오와 같이 요한사도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잘된 자로서 과연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시며, 혹시 하나님아버지께서 요한사도가 가이오를 향하여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 몸이 건강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된 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